

# ‘사람’ 가려 ‘이름’ 주기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안수길

유럽의 왕권들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할 때 포고관(布告官)을 썼다. 그 무렵 왕(王)의 포고관(Herald)은 나팔을 불어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 왕의 뜻과 명령을 소리 높이 낭독하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이웃에게 ‘포고된 왕명 내용’을 전해 듣는 수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왕명의 전달방법 자체가 시간적으로 극히 한정되어 우리의 ‘방(榜)’과 같이 일정 장소에 붙여 혹시 세목을 잊어버리면 다시 그 곳에 가서 방을 보면 되는 그러한 문명된 것은 아니었다.

일찍이 농사가 발달한 아시아권은 (안개 가득하고 어두운) 서구와는 달리 일광(日光)이 풍부한 땅이어서, 농작물 빌려준 세부 사항 등을 점토판(粘土板)에 楔形文字(설형문자)로 꼭꼭 찍어 햇빛에 말려 그 기록을 남겼다. 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모헨조다로와 슈메르에 남아 있는, 무척 많은 양의 점토판 문서들 대부분은 그러한 토지, 곡식, 그리고 부채(負債)에 관한 제반 기록이었다.

## 인간의 의사소통은 ‘소리 말’만으로는 부족

유럽을 근거로 하는 많은 언어학자들이 “인간들 언어(言語)는 ‘소리 말’이고, 따라서 ‘글자’는 그 소리를 기록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다”고들 말한다. 그것은 일단은 옳은 말로 보인다. 예를 들어 Homer의 Iliad 등도 당시 기록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긴 세월을 음영(吟詠)이란 방법으로 전승이 됐다.

그러나 인류는 선사시대(先史時代)에 수천 년간 생활을 영위해 온 끝에 결국은 필요에 의해 꾸준히 ‘말(言語)’을 개발/사용하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발달된 ‘언어’문화에는 ‘소리 말’ 이상의 것도 참여했다. 손짓 발짓도 했고, 그림과 부호도 동원해 의사를 전(傳)하고자 했고, 비망(備忙: memo)을 위해서 상징을 그려 보관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언어와 의사소통은 소리만 가지고는 모자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기호(記號)’는 필수적인 것’이었음을 뜻한다. 오래 두고 관찰하면 인류는 불필요한 일을 계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기호나 글자 등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글자’文化의 번창이 단적으로 상기(上記) 명제, 즉 “소리 말’만이 전부이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소리 말’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아서 ‘기호’ 등 추가 방편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바로 그 소리와 기호들의 복합물이 우리들의 ‘언어문명’인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Herald(포고관)의 경우도 서양의 경우이지 한자(漢字)라는 기록방법이(슈메-르 이동(以東) 상당 지역은 설형문자) 발달한 극동의 경우 기록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왕명하달(王命示達)도 더 편리했던 것이다. 한자권에서는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방(榜)’을 붙여 백성들이 초도열람하거나 재확인할 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했던 것이다. 포고관의 소리는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스러져버리기(ephemeral) 때문에 상기 ‘방문(榜文)’의 문화(文化)는 월등히 문화적(文華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꼭 지적하고 지나야 할 점은 왕의 뜻을 방문으로 공고한 극동의 경우 이 왕명은 철저하게 ‘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文華: 문명의 화려한 빛>

## 극동에서는 백성이 ‘글’을 아는 것으로 간주

이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서양에서는 백성들이 ‘소리언어’만은 알아들을 것으로, 다시 말해 원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는 데에 反해, 극동에서는 (백성이 글을 몰라 방을 세워도 쓸모가 없게 될 정도) 마을 전체가 무식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마을마다 서당(書堂)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날 우리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당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서당과 같은) 백성교육기관의 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는 사실이다. 즉 말단에 있는 백성 가르치는 기관이 전 세계를 찾아 비교해 봐도 가장 많았고, 우수한 자를 골라 향교, 사학(四學), 그리고 성균관에 진학시키고, 과거제도도 있었으니, 결국 변방(邊方)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인재들이 제대로 발탁될 기회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컸다는 사실이다. <구석구석까지 깔려 있던 서당 교육만이 아니었다. 부호군신(副護軍臣) 최세진(崔世珍)이 중종(中宗)의 명(命)을 받들어 만든 한자사전 ‘훈몽자회(訓蒙字會)[1527년]’에서 그는 “차서(此書)를 마을마다 한 권씩 갖게 하고, 학장(學長)을 두어 ‘권하고 매를 때려가며’ 이룩된 성동(成童)을 향교로 보(補)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뚜렷한 엘리트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겨레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기반인 것이다.>

## 우리의 ‘글’은 그 역사가 길다

슈메-르에서 시작해 극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설형문자(楔形文字)의 ‘楔(설)’이라는 글자는 ‘木’변이 없다면 ‘계’ 또는 ‘글’이 되는데, 이 ‘契(글)’자는 한자권에서 한국어 자체의 역사가, 그리고 특히 ‘글’의 역사가 길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글’이라는 말은 ‘契’라는 한자가 생길 그 무렵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이다.

다른 한편에 있어서 우리의 (지금 사람들이 중국의 한(漢)나라 이래의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한자/한문의 문화(文化), 또는 기술(記述) 방법은 사실은 왕후(王侯)들의 행정용 언어, 그리고 양반들과 글자를 아는 이들의 문화활동용(文化活動用) 언어였다고 봐야 한다. <백성들은 대부분 무식했지만 그래도 항상 집안, 또는 가까이에서 한문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의 사람들의 ‘국적’보다는 신라(新羅)와 당(唐) 등 ‘우수한 피’의 ‘북방(北方)연계’가 더 중요시되고 있었다. 당이 지나(支那)를 지배하고 그들은 ‘중국 외(外)중국’ <Sinu'd Sin, ‘신라·서역교류사(西域交流史)’, 무함마드·간수>에 살면서 신라를 같은 ‘중국 외중국’으로, 즉 중국을 지배하는 동등한 ‘사람’붙이로 대접했다.

與之婚孕生子女 自是群女群男漸得就倫(神市本紀 제3)

(이로부터 群女群男은 점차 ‘倫’이 될 수 있었다)

‘사람’이란 극동에서는 ‘倫’에 맞고, 생각 깊은 사람들을 뜻했고, 동방의 우생학적 고려로 ‘도태(淘汰)시키면서 얻어 낸’ 우수한 사람들을 뜻했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후일에 이를 ‘superman’, 즉 ‘초인(超人)’ 호칭으로 여러 작품에서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비상한 사람’, 또는 ‘신선(神仙)’의 존재를 지칭했던 것이다. 모두(冒頭)의 이 글 제목에서 쓴 ‘사람’도 그러한 ‘우수인류’라는 뜻으로 썼고, 그 당시부터 최근에까지 극동에서는 역사를 통해 내놓고 우생학적(優生學的) 노력을 했던 것이다. <‘倫’은 擇(select), 紀(sharpen, reforge), 又(right), 義(justice), 序(orderly), 道(Tao), 等(equal), 比(comparable), 類(무리), 常(法度, rule), 又(ethics)을 뜻함으로써 ‘사람’ 만드는 과정임>

‘巫帝/神仙정권’과 古列加帝 登仙 이후의 ‘武力化 정권’

단군정체(檀君政體)는 (지리학적으로) 가장 일찍 안정된 땅 한반도(韓半島, Precambria代)에서 태고적부터 ‘성(聖)스러움’을 찾았던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이 땅에서 한 단계 높은

문화를 향유하게 했지만, 후일에 나타난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지배층은 모두다 대륙 서북방에서 와서 (남에서 북방 끝까지 깔려 있었던 단군의) ‘辰(震)’나라, 즉 칠성님의 ‘용(龍)나라’였던 땅 백성들을 접수했던 것이다. 고구려/백제/신라의 건국은, 다시 말해 (신성한 九夷의 지도자인) 단군의 백성, 그리고 고도의 문화가 꽃피었던 부여 백성들의 무력화시대(武力化時代)로의 진입을 뜻하기도 한다.

그 중 신라는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당(唐)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 그간 당의 문화가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唐의 문화를 도입하면서 식자들은 한문으로 정신문화를 발달시키게 됐던 것이다. 한자(동방문자들)개발은 동이(東夷)가 예부터 해온 것이나, 당시 세계 최고 문화를 자랑했던 당의 한문중심문화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었다<李白, 陶淵明>. 객관적 사실로 봤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은 “한자와 한자계(漢字系) 단어를 빼고 예로부터의 ‘토박이말’만으로는 문화생활이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3>에서 언해(諺解) 부분의 한자계 단어를 없애고, 한글 부분만을 보면 그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000년을 두고 여러 가지 東方文字를 創制, 改良했던 東夷族

그 옛날 동방문자(東方文字)(仁濟大 陳泰夏교수 제창)를 개발했던 문자 창제(創制) 노력이 면면히 행해졌던 동이(九夷)를 이어 (그 東夷를 대표하게 된) 신라는 당나라와의 친교를 계기로 그들의 ‘글 중심 문화’를 도입해서 대개혁(大改革)(그때까지의 ‘符籙’格인 우리 땅의 기호들이, 즉 동방문자라는 기호들이 이 ‘개혁’으로 문장을 작문해 큰 뜻을 펼 수 있게 됐다)을 이룩했던 것이다. 새 흐름으로서 그 문화개혁의 구체적 실현이 ① 한자계의 ‘짧은 이름으로의 개명’, 그리고 우리말에의 ② 한자계 단어의 대량 도입 등이다.

이는 신라관 ‘문화유신’이었고 ‘창씨개명’이었다. 두 자 아니면 석자인 이 ‘짧은 이름’은 당시 ‘뉴-트렌드’로 대단히 문화적(이름이 길었던 ‘원시상태’와의 거리두기)이었고, 다른 한 편에 있어서 더 분해능(分解能) 높은 한자계 단어들의 대량 도입 역시 우리 언어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후일에 행정편의를 위해 대대적으로 지명(地名)까지 바꾸는 고려시대(高麗時代) 한자화 흐름의 시발점이었던) 이 시기를 우리는 ‘문화유신(文化維新)’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 즉 ‘신라의 언어 대개혁’, 또는 ‘신라의 문화유신’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결국은 행정서류 등에 그 기다란 옛 지명을 그대로 끌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는가.>

## 薛聰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漢文을 애용했다

설총(薛聰)이 ‘이두’를 창안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당시 글자문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기 쉬우나, 오히려 이 일은 반대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 한자사용이 이미 정착돼 설총 역시 한문 사용에 능통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후세에 서구에서 라틴어가 공통언어였고, 여타 언어보다 발달하고 정교해서 소르본느聖堂 등 학계에서 여러 나라 학자들이 모이면 모두 라틴어를 썼던 것과 같이 <1687년 뉴-톤은 당시 영어가 학술용으로는 너무 불편해서 필요성에 밀려 ‘Principia’를 라틴어로 썼다.> 신라시대 이미 이 땅의 식자들은 한자/한문을 흡수해 도약의 날개를 달아 정신문화를 크게 창달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화랑세기(花郎世紀), 부도지(符都誌) 등 왕성한 한문저작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 明나라系 ‘중화(中華)’의 적손인 조선조 문화가 늦깎이 淸문화와 竝立

이로써 한국은 정신문화를 활짝 개화시킨 나라가 되었고, 그 후 다시 조선조에서 우리 민족이 (중국을 문화대국으로 만든 당나라 소호금천계(小昊金天系) 동이족의 기개(氣概)를 공유하고 ‘같은 피’대접을 받은 신라에 이어, 우리 ‘동이족’은 ‘송(宋)’과 ‘명(明)’과 함께 학술을 발달시켰고(例, 海東의 공자 崔沖, 文成公 安昞 등), 다시 조선조 사색당쟁기(四色黨爭期) 등에 재도약(再跳躍)을 하게 되어 계속 ‘중화(中華)문화(“중화”는 중국보다 더 광범위)’의 중요부분을 형성해 가면서, 당당히 ‘중화(중국 포함)문화’를 휘몰다가 청나라 때문에 명나라가 망했을 때 ‘대중화’가 없는 상황에서 ‘소중화’로 한자권문화의 중심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청국(淸國)의 황태극(皇太極)이 쳐들어와서 인조(仁祖)의 삼전도(三田渡) 항복의 수모를 당했지만 이를 ‘병자호란(丙子胡亂)’이라고, 즉 일개 ‘란’으로 치부할 정도로 우리는 문화 종주국으로 행세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 땅에서의 중화문화의 큰 흐름이 인식되고 그 역량이 컸기 때문에 차차 이 땅에서 퇴계(退溪)/율곡(栗谷) 등 주자학(朱子學)을 꽃피워 지금도 일본에 ‘퇴계학’ 연구의 주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文華)’의 중심은 옮겨 다닌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중심축의 하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배층이 같고 닳은 한문이 (언어로서) 우수했기 때문에 그 덕으로 주자학 등 학문의 고도발달이 있었고, 위에서 설명한 사정 등으로 해서 우리는 명나라 멸망 후에 ‘중화문화’의 정통 보존자로서의 자량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서 ‘중화문화’는 ‘강희/건륭제(康熙/乾隆帝)의 청문화’와 병립했지만 후일에 일제의 ‘문화민족으로서의 한국’ 경시, 그리고 그들의 한국 강점(強占)이 ‘전반적인

“조선인(朝鮮人)”중(種) 경시’로 이어져 의암 유인석(毅菴 柳麟錫, 1842-1915)은 위대한 中華 문화의 대표자로서의 ‘한반도의 위상’ 때문에 의병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다. <“어찌 ‘왜(倭)’라는 미개의 땅 오랑캐들이 감히 ‘중화문화의 적손(嫡孫)인’ 조선(朝鮮)을 침략할 수가 있는가!”> 일제의 무력진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조선이라는 ‘문화(文華)’ 적손의 명맥이 끊겼기 때문에 결국 그간 면면하게 이어왔던 중화(중국보다 광범위)문화는 사실에 있어서 “이 조선 땅에서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 口語로 인한 중국 말의 漢文이탈

한자/한문 문화(文化)가 극동삼국(極東三國)에서 창달하다가 그 후에 한문이란 언어에서 중국이 이탈하기 시작해 결국은 ‘백화’라는 구어체(口語體)의 본격적 혼합의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본다면(近思錄: 成元慶譯에서 보면 “周張二程에… 당시 쓰던 구어체, 소위 백화문(白話文)으로 표기된 곳이 적지 않다… 특히 13권 6조항의 明道선생 말은 긴 글인데 거의 가 다 중국어 구어체로 된 글이다”로 되어 있다) 한자/한문을 (민족성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원형대로 지킨 우리 땅에서는 조선조 말까지 ‘중화문화’라는 동이의 가장 꽃다운 문명이 기세 좋게 발달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당시 비록 겸손해서 ‘小中華’라고 했지만, 최근까지 그 한자권문화를 지켜 한국의 식자들은 한자/한문계의 강력한 어휘의 도움을 받아 크게 사상계(思想界)를 휘저으며 한자로 시를 읊었고, 한문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다. (중국이 순수한 한문에서 점점 이탈하고, 백화적 표현을 대대적으로 쓰기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문을 보존해 양반에서 아전까지, 그리고 많은 집안에서 중요한 글은 한문으로 썼던 것이다.) 한문이 더 표현력이 강한, 그리고 편리한 언어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亂中日記)를 한문으로 썼고, 안중근 독립군 총사령관도 ‘時造英雄兮 英雄造時…’라는 구절을 포함한 장부가(丈夫歌)를 우덕순(禹德淳)이란 사람에게 보내고 있고 더 가까운 사례로는 대한민국 부총리 조순(趙淳) 씨 부친대까지도 주된 문필활동은 한문/한자였다.)

이 한자라는 불가결했던 ‘부호(符號)’들은 우리 어른들이 편하게 사용했던 우리의 ‘글’이며, 서로의 약속을 나타내는 데에 쓰였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던 바과 같이 ‘계약(契約)’이라는 말은 ‘글’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단어이고, 아직 점토판이 부드러울 때에 그 ‘글’을 찍어 넣어 설형문자 문서를 기록하는 데에 썼던 기구는 초기에는 목질(木質)이어서 (‘글’을 ‘契’이라는 한자로 음사했다면), ‘설’은 ‘楔’로 차음(借音)했던 것이다. 즉 우리말인 ‘글’에다 나무목(木) 변을 붙여 ‘楔’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어디까지나 글 문화의 모태(母胎)는 우리의 말인 ‘글’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쑤나라가 趙, 韓, 魏로 갈라질 때까지만 해도 한자개발에 참여했었다.>

<北京 天安門廣場 소재 역사박물관 戰國 七雄 時代 ‘漢字進化 매트릭스’ 참조>

다시 부연하자면 ‘Cuneiform(설형문자)’에 ‘한자’를 붙일(音寫) 때 우리의 ‘글’이란 말을 그 바탕으로 한 것이다. ‘契’자는 위 부분에 가로 세로 꼭꼭 찍어 만든 기호 ‘丰’와 찍는 데 사용한 ‘刀: 칼’모양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契은 大約也’로 되어 있어 ‘글은 큰 약속’임을 나타내고, 따라서 당시에는 ‘契(글)’이라면 중요한 약속으로 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글’은 貴重하고 큰 것이다

다음 이어 설문해자 ‘글’의 解字(풀이)에는 “이로 해서 후대에 성인(聖人)들이 쉽게 ‘書契’를 썼다”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글자’란 모든 정신활동의 모태로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얼’을 담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신선(神仙)들이 자유롭게 깊고 오묘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뜻이다. 즉 ‘글’이 바탕이 되어 모든 인간들의 성스럽고 고도한 생각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행사 한다고 포스터- 등 ‘글’을 길에 깔아, 밟고 다니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슬기로운 생각들을 너무나 모르는 소치라고 하겠다.

우리 동이족의 문명은 원시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모르고) 갈등 없이 마음 편하게 지냈던 이웃 땅에서, 또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로 부터 항상 존경을 받았다. 靑丘와 봉래산에 사는 우리 선조는 주변에서 불사(不死)의 신선으로 간주됐던 것이다 (帝出乎震 … 萬物이 出乎震하니 震은 東方也: 帝와 萬物은 동방에 있는 震나라에서 생겼다: 周易 說卦傳). 다시 말해 동이권 밖은 원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朝廷’이라는 말도 영어로 표현하자면 ‘Royal court’인데), 동이족에 비해 늦게 시작한 아시아권 신흥(新興) 무력집단이 자기네 왕권에 권위를 부여하려면 ‘Korean court’를 뜻하는 ‘조정(朝廷)’이라는 용어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우리 칠성님인 용왕과, 나라님 王廷의 권력 근거

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중국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대중이 썼던 말은 ‘백화(白話)’였고 지금 표준말인 ‘보통어(普通語)’도 지난날부터 이미 백화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한국인 등 외국인들의 한자/한문 지식이 완벽해도 중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보통문(普通文)’과 극동 여러 나라 행정에서 썼던 ‘한문’은 같지 않다.) 이 ‘백화’는 한문/한자와는 괴리가 있어서 로신(魯迅)의 狂人日記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



록에 남아 있다. 가야의 김수로王의 경우도 역시 2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姓을 받은 경우는 허황후(許皇后)가 성(姓)을 준 두 아이의 경우를 포함해서 15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이름 없이 자력으로 살아야 했다. 이는 동이의 전체 역사를 통해 (다른 동물/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종자를 찾아 우생학적인 노력이 꾸준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말까지는 불구적 조건의 분만아(分産兒)는 ‘있었던’ 것이다.

### 人名과 나라 呼稱은 항상 記號(기호)로

그런데 기원전 6,000년에 이미 기록언어(記錄言語) 문명을 이룩한 슈메-르의 경우 후일에 함께 Babylonia라는 국가를 형성한 Akkadia와는 그 언어가 달라서 지금의 캐나다와 같이 모든 문서를 두 개의 언어, 즉 Sumer/Akkadia로 병기(併記)해서 두 개의 언어를 서로 대조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그림 2>에서 보면 한 가지 기이한 것이 눈에 띈다. 그것은 서로 상대편 언어로 번역했는데도 사람 이름 등은 兩쪽 언어에서 동일한 기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라이름도 언어를 초월해서 같은 기호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름기호는 보존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는 “사람 이름은 ‘소리’가 아니라 ‘기호(記號)’로 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언어가 왕명을 나

타내는 기호는 같았고, 읽기는 ‘Lugal’와 ‘Shar’로 서로 달리 읽었다.> <<그림 2>의 둘째 줄에서 두 번째 기호와 6 번째 기호를 비교하면 Sumer가 떠난 다음, Akkadia계 단어인 “Babylonia”가 오늘날 국명으로 기록이 되고, 정착이 됐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소리’로 이름을 만들어 주는 여타(餘他) 지역에서는 사람을 기호가 아니라 <Dupont: 다리께, ‘Duchamps: 들께’ 등, 어구(語句)나> 음운(音韻)으로 구별해야 했기 때문에 한 글자로는 안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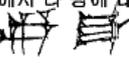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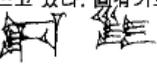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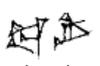
シュメール語 슈메-르 語		아카드語 アッカド語	
이 두개 언어의 대조번역비에서 보면 좌에 있는 슈메-르 語나 우에 있는 아카드語 양쪽에서 다 왕에 대해서는 같은 기호를 쓰고 있다. 固有기호이다.			
			
lugal	kala-ga	sharrum	da-num
王	強き	王	強き
			
lugal	ku-dingira (X)	shar	Babil (K1)
王	バビロンの	王	バビロンの
			
lugal	an-ub-da-timmu	shar	ki-ib-ra-tim
王	地方の	王	地方の
2째 줄 2째에 원으로 감긴 것은 Babylon 을 나타내며 역시 고유명이기 때 문에 언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kalame	dim-dim-me	ba-ni	ma-tim
國	創設者	創設者	匡의 “Babylonia” 創元社

그림 2. 슈메-르어와 아카투어의 비교.

만주에서 태어난 청제(淸帝) “누루하치”라는 이름, 또는 “늑대와 춤을”라는 인디언 이름과 같이 길어지기 일쑤이고, 다른 한 편에 있어서, 한 흡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음글자+자음글자 등 일반적으로 여러 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한자(非漢字)(기호)계에서는 이름 표기가 길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문명과 같이 역사가 장구해서 1000년을 두고 동방문자(한자 등)를 개량해 온 경우는 삼라만상(森羅萬象), 당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물(事物)과 개념(概念)을 각각 하나의 기호(동방문자)로 표시했다. <동방문자계(東方文字系) 문자, 즉 후일의 ‘한자(漢字)’는 문자사용 경험을 수용해가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뜻 혼란이 최소이고, 계열이 서 있어서 편리하며, 뜻이 깊은 것으로 천천히 형성이 되어갔던 것이다. 즉 동방문자들은 발음만 기록하는 알파벳과 같이 단순한 역사, 단순한 기능이 아니고 시간을 걸어 여러 궁리를 그 글자들에 수용해 갔던 것이다.>

사람들은 짧은 단어와 자구(字句)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더 문화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단어’와 ‘표현’은 최대한의 것으로 단축이 됐고, 그 글자들을 단음절로 발음하면서도 뜻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발음상 여러 궁리를 하게 됐던 것이다. 예를 들어 ① 악센트를 써서 차이를 줬고, ② 사성(四聲)을 구분해서 같은 음을 네 가지로 달리 발음시켜 뜻의 차별을 나타내게 해서 서로 구분케 했던 것이다. 사성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게 되고, 즉 문자를 많이 쓸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문장 길이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실은, 즉 정보밀도(情報密度)가 높은 글자문명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 1000년을 닦여 뜻이 있게 만들어진 ‘인지(人智)의 산물로서의 문자’는 전 세계적(全世界的)으로 달리 유례가 없다.)

## 우리의 마음姿勢를 바꿔 被支配 역사에서 심어진 열등감을 극복해야

단 우리의 고도 언어문명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난 300년간 우리에게 주입된 ‘열등감’부터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문 전적(典籍) 표현들은 그 일의적(一義的) 해석에 있어서 통사기교(統辭技巧)가 가장 강하다는 불어(佛語)문법에 따라갈 수는 없어서, 종종 여러 뜻(多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전적(典籍) ‘읽는 이’가 열등감을 갖고 대한다면 그 읽어내는 내용도 왜소하고 비굴한 것이 되기가 쉬운데, 우리는 지난 300년간 계속 외세로부터 열등감을 주입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문사서(漢文史書)는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이면서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재독(再讀)/재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 漢字/漢文은 내용(정보)密度가 크다(寸鐵殺人)

언어가 ‘소리 위주’로 정착이 된 다른 나라에서는 한 ‘소리단위’가 일반적으로 둘, 또는 세 개의 글자로 나타나게 마련이어서 우리의 한자의 경우와 같이 글자 하나로 당장에 뜻을 확정(確定)하는 언어는 개무(皆無)하다. 우리 토박이단어들의 경우도 ‘밥, 쌀, 물, 소’ 등 단음절(單音節)의 단어를 많이 개발했는데, 이는 겨레 역사가 극히 길었고<한국(桓國)부터만 계산해도 13,000년> ‘풍부한 일광(日光)’이라는 지리학적 조건 등으로 극히 시각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만들어 갔기(Source 文明, 따라서 Namers) 때문이고, 영국 일본 등 Sink문명의 경우는 그들이 받아들여지게 된 문화의 다원성(多源性, multiple sources)으로 해서 같은 소리로 들리면서 근본이 다른 여러 단어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악센트가 꼭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밥, 쌀, 물, 소’ 등 단음절의 단어를 혼란 없이 사용/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Source문명의 족속이었고 당시 문화를 공유할만한 비슷한 이웃이 없어서 생활기초단어에 외국어의 혼입이 개무(皆無)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 初聲, 中聲, 終聲 각각의 가지 數가 많고, 따라서 그 組合도 世界 最多

특히 우리 어휘(語彙) 대부분이 짧은 단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음단위로 봤을 때 초성, 중성의 종류가 유난히 많아서(‘k’ 하나에 ㄱ, ㅋ, ㆁ로 대응하는 등, 그리고 모음(母音)이 해양계(海洋系) 언어와 같이 5모음 체계에 더해서 위, 의, 외...의 추가 등) 발음의 가지 수가 풍부했고, 특히 중성(終聲)의 가지 수가 다른 언어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7가지), 짧으면서도 서로 구분이 되는 단음절 단어를 풍부하게 가지게 됐던 덕분이었다.

## 세종대왕 탄생 때 이름은 ‘도’가 아닌 ‘禱’

슈메-르 語와 Akkadia 語의 경우 이름이 음성(音聲)이 아닌 기호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은 위에서 이미 말했지만 그와 같이 사람 이름을 기호로 주는 것은 극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한자(漢字) 한 자(字)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특정(特定)되게 했던 것이다. <슈메-르族 주류는 치우천황(蚩尤天皇)과 황제(黃帝) 사이의 대전쟁 때 동방복귀> 예를 들어 세종대왕은 생전에 ‘世宗’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그가 태어날 때 주어졌던 이름은 ‘도(禱)’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때부터 이 이름을 외탄(畏憚)하게 되어 자식들 이름 지을 때 이 글자를 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도(禱)’라는 이름은 (그 분 한 분만 쓰는) 고유명사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세종 후 지금까지도 ‘禱’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한국사람이라면 아무도 없는 것이다.

옛날에는 ‘국민’이란 개념보다 성골/진골 등 ‘우수한 피’들끼리 서로 존중했기 때문에 조선 왕가와 (天子 호칭이었던) 이웃 명나라 사이에 서로 이름 중복이 없게 조정했던 것이다. <이것을 ‘허가’로만 파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한반도의 왕권은 고구려 이래 막강했고, 북방계였던 소호금천계(小昊金天系) 신라 왕권 역시 당나라와 함께 ‘중국 외중국’으로 분류되어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왕자이름의 채택’은 허가 절차가 아니고 왕가혈통(王家血統)끼리의 부호조정(符號調整)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슈메-르의 경우 부명(父名)에 (縱, 또는 橫의) 설형(楔形)기호 하나, 또는 복수로 추가해서 자식 이름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설형문자는 새 기호를 만들기가 극히 쉬웠고, 따라서 기호들이 많아져서 모든 기호에 반드시 1대1로 발음이 대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생길 상황인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는지 대형 한자사전에서 보면 글자는 있지만 중국 발음은 없는 경우가 제법 있다. (그러한 글자가 중국에는 없었거나, 아니면 때로는 ‘동방문자’ 권에서 빌려 쓰면서도 발음은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호를 쓰는 문명’에서는 새 사물/개념을 만날 때마다 기존의 개념과 사물명에 획(畫)을 추가해서 새 이름(記號)을 만들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그것이 동방에서 학술 등 문화가 쉽게 발달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 나타내는 事物을 분류해서 미리 정리해 주는 文字體系

세부까지 구분이 되면서도 거칠게나마 특정(特定)단어의 범주가 들어나는 기호법(記號法)이 물론 더 편리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한자의 경우도 ‘변’이나 ‘머리’ 등 부수(部首)로 해서, 대상이 금속류인지 조류(鳥類)인지가 쉽게 파악이 돼서 혼란이 적기 때문에 더 쉽게 학문이 발달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었다. 또 한 ‘기호’는 시각적인 대분류(大分類)를 허용하기 때문에 개념의 분류가 쉬워 혼란 없이 더 깊고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학술의 고도 발달이 가능했던 것이다. <실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박쥐(편복, 蝙蝠)’는 고민 끝에 벌레로 분류됐다: 두 번째 글자도 ‘벌레虫’변>

## 한자권도 고유명사는 ‘기호’인 漢字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서 한자권의 경우도 고유명사들을 한자로 부여했다. 그래서 원래 흐름의 양태를 나타내서 ‘江’과 ‘河’는 각각 양자강(楊子江)과 황하(黃河)에게 주어졌던 고유기

호였던 것이다. <‘江’은 흐름이 교대로 좌우로(ㄷ+ㄹ), ‘河’는 두어차례 같은 방향으로(ㄷ+ㄱ) 굽는 양상을 묘사> <黃河와 遼河 등 ‘河’계열이 우리 민족 문화 발상지와 관련이 많은 점은 지구상에서 가장 노령화된 - precambria代의 - 땅이고 평지에 쉽게 형성이 되는 ‘江’에 비해 ‘河’는 山多를 뜻하기 때문에 ‘河’에서 쉽게 얻어지는 맑은 수질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鴨綠水’와 瀝靑海를 각각 찾았던 동이와 Greece族의 공통점인 ‘푸른물 희구’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도대체가 ‘말 글’용이 아닌 한자밖에 없어서 ‘말’은 백화(白話)로 진화해 가는데도 행정관계는 한자/한문을 썼던 중국의 경우는 문장 전체가 다 한자였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한 사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국어의 한한혼용(漢韓混用)의 경우는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개의 alphabet se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명(國名)과 인명(人名)은 기호로 준다는 사실이 언해(諺解) 등을 통해서 더 잘 들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훈민정음 반포 이후 한언(漢諺)혼용을 많이 했던 한국의 경우 ‘이름은 (기호인) 한자’라는 사정은 한문전적들의 諺解에서 잘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름은 한자’이기 때문에 모든 한자전적을 한글로 번역했을 경우까지도 인명과 국명 등은 한자라는 시각기호를 한글부분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필서(筆書)하거나, 발행된 모든 언해에서 (다른 단어들은 번역하지만) 이름은 한자를 그대로 남기고 있고, 그것이 주격(主格)일 경우 주격 조사인 ‘가’, 또는 ‘이’를 뜻하는 ‘ㅣ’가 뒤따르는 데에 예외가 없다. <이는 그들의 ‘ㅣ’라는 기호에 대한 기능부여가 더 고도의 것이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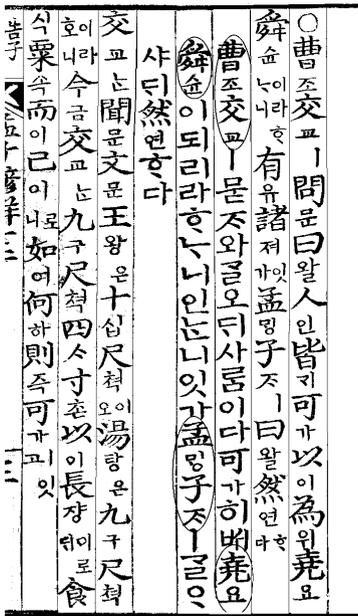


그림 3. 맹자언해 권지12의 일부분.

<그림 3>은 맹자언해(孟子諺解)의 권지(卷之) 12의 사본이다. 사람 이름은 물론 토박이말에는 없는 모든 단어 역시 한자로 쓰고 있으면서 발음을 한글로 달아주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攻하다’, ‘走하다’, ‘倉庫’, ‘實하다’, ‘浚하다’, ‘屬하다’, ‘寬하다’, ‘和하다’, ‘叛하다’와 같은 세분화된 단어들을 토박이말 위주였던 우리 어휘에 대대적으로 추가>

여기서 보면 ‘曹交, 堯, 舜, 孟子’ 등은 최종적인 언해(諺解)인 데도 漢字로 남겨 같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identity(정체성, 동일성, 주체성)는 전혀 달라질 여지가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경우 한글로 ‘조교’, ‘요’, ‘순’ 등으로 적는다고 해서 사람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소리’들은 그 주체인 성명(姓名)을 청각을 통해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뿐이다. 이와 같이 자



기간이 길어 발음하기에 무리가 없는 발음조합으로 닳이면서 정착이 되어 갔기 때문에 시(詩) 등의 낭독에 있어서 발음이 우아하고 매끄럽다.>

우리의 경우 물론 언어가 개발된 초기에는 ‘음성’만을 써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 단계도 있었지만, 농사가 발달되고 따라서 밥걱정을 안 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생겨 시간 내서 공부도 하고, ‘문화’도 다루게 되어, 농지의 소유권, 곡물의 대여(貸與) 등을 기록하게 됐든 것이다. 농사에 종사(從事)하지 않아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람들의 관념(觀念) 등 추상적인 사물을 광범위하게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라는 부호’를 의사소통 및 기록의 보조수단으로 안 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즉 가장 발달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음성언어만 갖고는 충분치 않는 시대에 우리는 더 일찍이 진입했던 것이다.

<그림 4>는 ‘詳密주해 통감언해(通鑑諺解)’의 卷之一 ‘周記’ 3p의 경우인데 한 단계 낮춰 쓴 부분이 언해부분이다. 이 언해부분에서 인명은 단순한 원(圓)으로 감았고 ‘晉陽’ 등 地名의 경우는 이중원(二重圓)으로 감아 표시했다. 원문(原文)부분과의 대조로 인명과 지명이 언해에서까지 한자로 되어 있어서, 각각이 ‘기호’를 떠나서는 온전한 것이 아님(identity 이탈)을, 즉 ‘筭’이 아닌 ‘同’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명 지명이외의 ‘토박이 말’에는 없는 한자계 낱말들은 역시 언해에서 (한글로 발음을 달아 주면서도) 그대로 한자로 쓰고 있다(예, 斃死, 倉庫). 한자계 단어를 배우게 해 더 세분화된 새 단어들을 우리 말 어휘에 도입한 것이다. <신라의 언어 개혁> (오늘날 협량자(狹量者) 들은 토박이말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와는 반대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언해는 이해를 돕고 한자를 포함해 공부를 하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하자는 것이지, 한자를 없애자는 ‘諺解’가 아니었던 것이다.

## 極東에서 사람이름은 시각기호 위주이다

정리하자면 극동권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기호로서 이름을 주기 때문에 기호로서 그 뜻이 좋으면 ‘소리’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목살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서 이름을 지을 때 원형리정(元亨利貞) 따져가며 주로 기호의 수리상(數理上) 좋은 이름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얻어지는 이름을 음운(音韻)의 시각으로 봤을 때 ‘池도곤, 秋진수, 任신중’ 등 기이한 어감을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즉, ‘소리’에 개의치 않고 좋은 뜻의 기호(이름)를 얻는 일에 정신을 쏟았다는 시각으로 봤을 때에도 사람의 이름이 여지없이 ‘기호’였다는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대체가 이름이란 어렸을 때를 빼놓고는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록해서 시각적으로 identity가 나타나게 하는, 말하자면 ‘인감(印鑑)기능’이 제1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자권에서 자

기 성과 이름을 ‘한글’로만 쓰면 겹쳐서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劉’氏와 ‘柳’氏, 康氏와 姜氏 등) 즉 identity 판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발음만 적어 identity(정체성, 동일성)가 확립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히 ‘가성(家姓)’의 경우, 지난 날 제 땅의, 그리고 자기 집 가성에 담긴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한 ‘지나친 몰상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성의 자의망각(字義忘却), 그리고 처신의 자율 노력 결여로 해서 ‘倫’ 이탈, 그리고 동물의 원시로의 회귀> 깊이 들여다 볼수록 성인(成人)들의 이름이란 그리 함부로 불러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따라서 각자가 선친들의 ‘精’과 ‘誠’이 결정(結晶)되어서 만들어진 자기 ‘이름’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조상들이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 분들이 ‘이름’ 속에 남기신 ‘소망’이고, 그 어른들의 진정한 ‘뜻’인 것이다.

후손을 위한 선조들이 ‘작명으로 남기신 뜻’에 맞는 처신을 한다고 해서 자기의 ‘格’이나 평가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현대교육, 또는 몸 밖에서 붙인 어떠한 ‘품’보다도 더 높은 ‘품격’을 만들어 각자의 <물건이 아닌 사람의> ‘인격’을 완성해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